

## ‘막막한 프로야구 개막’ 지쳐가는 선수들... 팬들...

선수들 “야구만 할 수 있다면 무관중 경기라도”... 경기 축소·연봉 삭감 현실화될까 ‘우려’

KBO리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개막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구 선수와 관계자, 프로야구를 기다리는 팬들도 지쳐가고 있다.

KBO리그는 당초 지난 3월에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막이 연기됐다. 문제는 개막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지난주 실행위원회에서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는 4월 21일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개막 데드라인을 5월 초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만약 개막이 더 늦어진다면 경기수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 시즌 축소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실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대응방안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체 훈련과 청백전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그러나 개막이 언제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무턱대고 몸상태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 한 프로야구의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은 경기에 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힘들어하고 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선수들은 “야구만 할 수 있다면 무관중 경기라도 좋다”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의 자체 청백전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구단의 관계자는 “코로나 19 초반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다. 개막을 해야 할 시점인데 어렵다.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도 있지만, 감염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선수도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실제 일부 구단에서는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와 선수단 전원에 자택대기를 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몇차례 반복되

면서 훈련 루틴이 깨지고 있다. 선수단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다. 경기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144경기를 소화해도, 안해도 올 시즌 구단 운영은 힘들 것이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혹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 올해 받을 연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아직 시즌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연봉 축소 지급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KBO도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례없는 프로야구의 중단.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절대 성공해서는 안된다.

KBO는 7일 실행위원회를 다시 연다. 개막일, 일정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뉴스



##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승리기여도 1위는?

추신수 WAR 34.5... 박찬호 18.1, 류현진 13.5

미국 CBS 스포츠가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의 기부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활약상도 부각시켰다.

CBS 스포츠는 2일(한국시간) 추신수의 통산 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이 34.5로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가운데 1위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21명의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거 무대를 밟은 가운데 이 중 두 자릿수 통산 WAR을 기록한 것은 추신수를 비롯해 박찬호(18.1) 류현진(13.5), 김병현(11.1) 등 4명이다.

WAR은 특정 선수가 대체선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 승리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타격과 주루, 수비, 투구 기록 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수치다. 통산 WAR은 매 시즌 WAR을 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WAR 8 이상은 최우수 선수(MVP), 5 이상은 올스타, 2 이상은 주전 선수로 분류한다.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15년 동안 메이저리거에서 활약한 추신수의 시즌 평균 WAR

은 2.3이다.

추신수는 2009년과 2010년 WAR 5를 넘겼다. 당시 올스타급 활약을 펼쳤다는 의미다. 타율 0.300 20홈런 86타점 21도루 87득점을 기록한 2009년에는 WAR이 5.5였고, 타율 0.300 22홈런 90타점 22도루 81득점의 성적을 거둔 2010년에는 WAR 5.9였다.

빅리그에서 6년을 뒀던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즌 평균 WAR은 2.25다. 메이저리거에서 9시즌을 소화한 김병현은 평균 WAR이 1.23, 17년간 빅리그 무대를 누빈 박찬호는 평균 WAR이 1.06이었다.

CBS 스포츠는 추신수가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위해 기부한 사실을 전하면서 “추신수는 빅리그에서 뛰는 15시즌 동안 통산 213개의 홈런을 날렸다. 오랫동안 대단한 타자였다”고 극찬했다.

한편 추신수는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 191명 전원에게 1000달러씩 총 19만달러(약 2억3000만원)를 지원했다. /뉴스

## 올시즌 프로농구 MVP는? 김종규-허훈-송교창 3파전

2019~2020시즌 프로농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기 종료된 가운데 KBL은 오는 10일까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선정을 위한 기자단 투표를 진행한다.

원주 DB의 공동 1위를 이끈 김종규(29), 데뷔 후 최고 퍼포먼스를 선보인 허훈(25·KT), 고졸 출신으로 국내선수 득점과 공헌도 부문 1위에 오른 송교창(24·KCC)이 MVP 후보로 평가받는다. 김종규와 허훈의 양강 구도에서 송교창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김종규는 43경기에서 평균 13.3점 6.1리바운드 2어시스트 0.8블록슛을 기록하

며 DB의 공동 1위를 이끌었다. 국내선수 리바운드 부문 1위, 득점 부문 5위에 올랐다. 블록슛은 전체에서 4위다.

2018~2019시즌 8위였던 DB를 최고 자리까지 이끈 게 눈에 띈다.

김종규는 지난해 자유계약(FA) 시장에서 역대 최고 보수인 12억7900만원을 받으며 창원 LG를 떠나 DB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 첫 시즌에 급상승한 팀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허훈은 데뷔 후 최고 활약을 펼쳤다. 평균 14.9점으로 국내선수 득점 부문 2위에 올랐고, 7.2어시스트로 이 부문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 김시래(LG)의 평균

4.8어시스트와 차이가 크다.

임팩트만 따지면 김종규를 압도한다. ‘사실상 단신 외국인선수’라는 평가처럼 리그 전체를 봐도 독보적이었다.

지난해 10월20일 DB전에서 3점슛을 연속으로 9개 성공하며 조성원(명지대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올해 2월9일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는 역대 한 경기 최다 어시스트 2위에 해당하는 2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1위는 김승현의 23어시스트.

허훈은 이 경기에서 24점 21어시스트로 20-20을 달성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 경기에서 20득점 이상, 20

어시스트 이상을 동시에 기록한 건 출범 이후 허훈이 최하다.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등학교 신인으로 프로에 입문한 송교창은 국내선수 득점 1위, 공헌도 1위로 실속 있는 시즌을 보냈다.

42경기에서 평균 15점 5.6리바운드 3.2어시스트 1스틸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선수 공헌도에서 김종규(2위)와 허훈(5위)을 모두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외국인선수까지 모두 포함해도 국내선수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전체 9위다. 나이가 어리지만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전술 이해도가 높아 코칭스태프의 강력한 신임을 받는다. 이정현, 라건아, 이대성 등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뉴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